



‘정의’(צדקָה)와 ‘의’(קַרְטָּוּס, δικαιοσύνη)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정치와 한국교회의 정치적 책임*

유윤종(평택대학교)

시작하는 말

2020-21년은 세계 역사에 있어서 큰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말에 중국에서 퍼져나간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는 2020년의 지구촌을 죽음과 공동체의 파괴라는 공포로 몰아넣었다. 2021년의 현재 상황도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나 퇴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많은 학자는 2020-21년을 코로나 이전(B.C, Before Corona)와 코로나 이후(A.C., After Corona)로 구분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이러스와 자연재해로 인류는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예측이다. 지구촌이라고 불

* 이 글은 2020년 11월 13일 기독교학술원에서 발표한 “구신약 성경관점에서 본 정치적 책임”이라는 글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릴 만큼 전 세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터라 2020-21년의 재앙은 한국도 피해갈 수 없다. 다만 2020-21년의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상황의 특이함은 ‘교회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라는 사회적인 위기 대응에서 교회가 코로나 전염의 진원지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교회는 공동의 선을 얻는 데 실패하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¹ 2000년 이후 한국교회에 대한 청소년층들의 외면으로 인한 위기감이 심화 되던 터라 코로나 상황에 대한 한국 개신교회의 대처 실패는 그 위기를 심화시켰다. 따라서 뜻있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된다. 그 맥락에는 대면 및 비대면 예배와 같은 개신교 내의 주제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의 관계’, 보다 구체적으로 ‘교회와 정치의 관계’ 등 많은 문제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치화된 일부 기독교 세력의 무분별한 과격한 행동은 기독교의 정치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던져주었다.

구신약 성서에서 ‘정치’라는 단어는 없다. 오늘날의 사회적인 문제의 답을 성서에서 찾고자 할 때 가지는 어려움은 성서가 오늘날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모든 해법을 제시할 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오늘날 ‘정치’의 개념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성서가 말하는 내용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오늘날의 정치를 구신약 성서에 일대일로 비교한 후 곧바로 연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다만 정치의 개념을 정의한 다음 성서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정치(politics)는 도시를 뜻하는 그리스어 폴리스(polis)에서 왔으며, 폴리스 내의 어떤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활동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따라서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유래를 찾는다. 이 경우 정치는 폴리스의 행복이라는 철학과 관련되

1 성석환, “코로나 19시대 뉴노멀의 윤리적 가치로서 ‘공동의 선’과 한국교회,” 「기독교 사회윤리」 47(2020), 139-169.

어 있다.² 다만 정치의 개념은 역사적, 사회적, 국가 상황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 「정치학대사전」에 의하면 “권력의 획득 유지를 둘러싼 항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정치 활동이라고 말하고, 그 행동 양상을 정치 현상이라고 한다. 정치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환경이나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조건이 정치적 상황이다.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 인간이며, 정치가 일상화하는 것이 정치조직이다.”³ 이처럼 정치에 관한 설명만 존재할 뿐, 정치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는다. 네이버 두산백과 사전에는 정치에 관한 다양한 정의를 소개한다. 종합하면 정치란 ‘국가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활동으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고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일’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대의 정치는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통해 권력을 얻기 위해 경쟁한다. 따라서 정치는 국가와 국가권력을 전제로 하며, 국민 다수의 뜻을 모아 그 목적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 방법은 입법 활동이 대표적이며, 입법에 영향을 주는 단체나 이익집단들의 활동까지 포함한다.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현대사회에서 정치와 무관한 개인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개념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정치의 개념을 ‘개인 혹은 집단의 욕망과 국가권력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 관계의 조정’이라고 본다. 기독교인과 교회도 큰 개념에서 보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려는 개인 혹은 집단에 속한다. 기독교인과 교회의 정치 활동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나는 점은 또 다른 논쟁거리이므로 별개로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권력 및 욕망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

2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서울: 박영사, 2002), 3-4.

3 「정치학대사전」(서울: 박영사, 1975), 1321-22. 위의 책, 3에서 재인용.

4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정치’ (2020. 10. 15)

의 원인을 찾고 해결할 책임이 있다.

성서에도 국가와 권력과 백성이 존재한다. 국가와 권력과 백성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정치 활동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구약성서에서 정치 활동의 배경이 조성된 것은 사사 시대 이후이다. 사사 시대에 국가가 존재한 것은 아니었지만, 12지파 각자가 지배조직을 가지고 느슨한 지파 연맹체라는 분산된 권력의 형태로 정치 활동이 이루어졌다. 지파 간의 갈등이 조정되지 않았을 때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삿 19-21장).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을 특징으로 하는 왕정 제도의 형성은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적대세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왕을 권력의 정점으로 하는 왕정 제도의 위험은 사무엘에 의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현실적인 위기 앞에 백성들의 뜻은 왕을 세우는 것이었고 하나님도 왕을 세우려는 백성들의 뜻을 수용한다(삼상 8장).

사울을 거쳐 등장한 다윗 왕조에 이르러 본격적인 왕정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국가라는 틀 안에서의 자율적인 정치 활동의 공간이 마련된 시기는 다윗 왕정이 건재하였던 주전 1000-586년이다. 약 400여 년간 이스라엘 사회는 지배 권력이 존재했고 그에 따른 정치 활동이 존재하였다. 사무엘이 지적한 대로, 왕정 제도의 위험은 한계를 모르는 권력의 독주였다. 왕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정치는 실종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 되었다. 왕정 시대에 대한 구약성서의 정치적 관점은 여야 간의 정책대결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 즉 ‘하나님의 통치’(God’s rule)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었다. 율법을 수여하고 예언자를 보내 끊임없이 설득해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권고하였다. 하나님은 율법과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의 간격을 줄이고자 하였다. 예언자들은 정치의 중심에 있던 권력자들을 비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개를 통한 회복을 설득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권력

사용은 일방적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치’(God’s politics)라고 부를 수 있다.⁵ 하나님의 정치란 성서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려는 인간의 시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적 개입을 의미한다.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는 구약의 율법에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종교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왕, 제사장, 예언자), 법률, 사회복지 제도까지 포함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왕정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예언자를 통해 전달되었다. 하나님의 정치참여는 예언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구약 왕정 시대의 권력 지배조직에는 왕, 귀족, 제사장이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예언자가 있었다. 따라서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정치이념(ideology)이 포함되어 있다. 예언자의 메시지는 당시의 악한 사회상 및 왕을 비롯한 지도층들의 부패들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 종교비판과 사회비판이 비판의 주된 내용이다. 그 비판의 핵심적인 이념은 정의와 의였다.

신약에서도 ‘정의’(디카이오쉬네)는 예수에 의하여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정치이념의 역할을 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의 의가 구체화 된 사건으로 해석하며,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였다.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권위 있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철학이 성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요세푸스부터 시작된다. 그는 신명기를 유대인의 헌법이라고 주장하며 핵심적인 정치적 가르침을 신명기에서 찾으려 하였다.⁶ 초대교회 때에는 암브로스부터 어거스틴 및 유세비우스에 이르기까지

5 필자는 이 용어를 김동환의 글에서 인용하였다. 김동환은 구약을 아웨의 정치, 신약을 예수의 정치로 파악하였다. Dong Hwan Kim, “Politics in the Bible,” 『대학과 선교』 22(2012), 75-93.

6 Yehoshua Amir, “Josephus on the Mosaic ‘Constitution’,” in eds. H. G. Reventlow, Y. Hoffman and B. Uffenheimer, *Politics and Theopolitics in the Bible and Postbiblical Literature* (JSOTSS 17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13-27.

많은 교부들도 로마제국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찾고자 시도하였다. 중세 및 르네상스와 근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은 성서를 정치적 가르침을 위한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⁷

구약에서 하나님의 정치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정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 속에 표현되어 있다. 신약성서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제국의 식민지 상태였으므로 자율적인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던 때였다. 그러나 로마제국 아래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도 로마제국과의 관계에서 정치적인 의무를 지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나님의 정치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한 내용에 잘 드러난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7-19).

이 글은 정의(미쉬파트)와 의(צדקה)가 구약성서 전체를 흐르는 핵심주제이며 하나님의 정치이념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와 의는 신약시대에도 이어져 예수에 의하여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정치이념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정의와 의’는 한국교회가 이 땅

7 Michael Walzer, *In God's Shadow: Politics in the Hebrew Bib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에 구현해야 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최고의 정치이념이며 핵심가치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정치를 통해 보편적으로 구현해야 할 책임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2. 구약성서에 나타난 정의(正義, justice)와 의(義, righteousness)

1) 정의(definition) 및 연구사

구약성서에서 정의와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뜻이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시 89:14). “구름과 흑암이 그를 들렀고 정의와 공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시 97:2).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의와 의의 수호자로 나온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시 99:4). 정의와 의가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구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며,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맞이하게 될 심판의 근거가 된다. “무릇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박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사 5:7).

구약성서에 나오는 정의와 의를 가리키는 용어는 각각 ‘미쉬파트’와 ‘췌텍/쯔다카’이다. 구약성서에서 ‘미쉬파트’는 421회 나오며, 개역 개정은 주로 ‘정의’로, 그 외에 ‘의, 공평, 심판, 재판, 판단, 판결, 법도, 규례, 율례, 법’ 등의 다양한 의미로 번역하였다.⁸ ‘췌텍/쯔다카’는 구약에서 482회 나오며

8 김창락, “성서에 사용된 정의와 관련된 용어들의 번역에 대하여: 미쉬파트, 체테카, 체테크, 디카이오 쉬네의 용례를 중심으로,” 『성서원문연구』 30(2012), 165-66.

남성 형태인 켄텍으로 119회, 여성형태인 쓰다카로 157회, 형용사인 짜딕으로 206회 나온다. 이 단어의 의미는 구원, 정직, 온전, 의 등으로 번역된다.⁹ 우리말 개역개정은 이 단어의 명사형을 주로 ‘공의’로 번역하였다. 형용사는 ‘의로운’으로 번역하였다.

이 두 단어의 정확한 의미 파악은 매우 어렵다. 연구 성과는 많지만 정확한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 첫째, 미쉬파트는 히브리어 동사 ‘사파트’(재판하다)에서 온 것으로, 그 의미는 재판을 통해 사회적으로 정립된 공평한 법률로서의 ‘옳음’을 가리킨다. 그런 맥락에서 이 단어는 ‘사회적으로 확립된 옳음’이라는 의미이므로 ‘정의’(正義, justice)로 주로 번역된다. ‘켄텍/쓰다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옳음을 가리키므로 필자는 ‘의’(義, righteousness)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¹⁰ 켄텍/쓰다카의 의미가 개인적인 차원을 가리키는 예는 고난받는 종의 임무에 잘 드러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짜딕)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아쯔딕)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사 53:11).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의’라는 개념도 대사회적인 차원과 밀접한 관련 되어 있으므로 미쉬파트와 켄텍/쓰다카의 엄밀한 구분은 불가능하다. 두 단어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57회나 된다는 점은 이 두 단어가 합하여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사일이(二詞一意, hendiadys) 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두 단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다룬다. ‘미쉬파트’는 재판이나 법령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 옳음’(의)을 가리키며, ‘켄텍/쓰다카’는 개인의 헌신이나 희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옳음’(의)

9 J. J. Scullion, “Righteousness (OT),” *ABD* Vol V(1992), 734.

10 국립국어원의 표준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공의(公義)의 공(公)은 ‘여러 사람에게 관계되는 국가나 사회의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에 강조점이 주어진 ‘쓰다카’는 ‘의’(義)가 더 적절하다. 의(義)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로 풀이되어 있다.

을 나타낸다고 본다. 두 종류의 ‘옳음’이 지향하는 공통점은 ‘개인적인 옳음’을 통하여 ‘사회정의’를 이룬다는 것이다. 개인이 아무리 의로워도 사회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그 개인은 완전하게 의로울 수가 없다. 반대로 사회 정의가 아무리 잘 이루어져 있어도 개인의 도덕적인 의가 허물어지면 사회적인 의가 올바르게 설 수 없다. 그러므로 미쉬파트와 켈텍/쓰다카의 관계는 바늘과 실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한다. 개인적인 의와 사회적인 정의가 합해질 때 그 사회와 국가의 온전한 정의를 형성할 수 있다.

‘정의와 의’를 둘러싼 주제는 한국의 구약학자들이 2000년대 이후 가장 활발하게 다룬 분야이다. 「구약논단」에서 11편의 글이, 기타 학술저널에서 7편의 글이 발표되었다.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폭발적으로 한국에서 인기를 끈 이유는 정의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구약학자들이 이 대열에 합류한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이종근은 고대 근동의 법률 문서에 나타난 ‘정의’의 문제를 다룬 두 편을 발표하였다.¹¹ 첫째, 수메르의 우르남무와 리피트이쉬타르 법을 분석한 후 신권정치를 표방한 왕들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아 독재적이지만, 모든 신이나 신전에 선정을 베풀고 백성들에게 법과 정의를 행하였다고 기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정의에 관한 인간의 염원은 신들의 속성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수메르어의 태양신 우투, 아카드어의 사마쉬는 법과 정의의 신으로 묘사되었다. 정의의 실현은 복리민복으로 표현되었고, 정의의 개념은 사법 정의뿐만 아니라 인간 존엄과 권리 신장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고 관찰하였다.¹² 둘째, 수메르의 우루-이님기나 법

11 이종근, “생명존중을 위한 메소포타미아 법들의 정의(正義): 우르남무(Ur-Nammu)와 리피트이쉬타르(Lipit-Ishtar) 법들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5(2003), 261-297; “우루-이님기나 법과 히브리 법의 사회 정의 고찰,” 「구약논단」 28(2008), 142-161.

12 윗글(2003), 286-296.

과 히브리 법의 사회 정의를 비교하는 글이다. 수메르의 우루-이남기나 법에서의 사회 정의는 신의 뜻을 실현하는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그러므로 “세금면제, 노예해방, 포로 석방, 포로귀환, 토지회복, 신전의 재건, 도량형의 설치, 왜곡된 관행과 질서를 공정하게 만드는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구약 성서의 율법에도 유사한 용례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만 수메르 법에서의 주체는 왕이지만, 구약성서에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하였다.¹³ 서명수는 맹자의 인의(仁義) 사상과 구약의 공의 사상을 비교하였다. 그는 맹자의 인(仁)에 근거한 의(義)를 구약성서의 ‘헤세드’에 근거한 ‘미쉬파트 및 쓰다카’에 등치시켰다. 그는 ‘헤세드’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근본원리로 이해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원리로서 ‘미쉬파트/쓰다카’로 파악하였다.¹⁴ 배희숙은 한국 사회에서 제기된 ‘공정한 사회’의 개념을 구약성서 내의 ‘쉴렉/쓰다카와 미쉬파트’의 용례를 중심으로 공정한 사회의 모습을 그려내고, 주전 8-7세기의 불공정한 사회의 특징을 분석한 뒤, 극복을 위한 이스라엘의 응답을 예언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불공정한 사회에서 공정한 사회로 전환되는데 구성원의 연대감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¹⁵ 미쉬파트와 쓰다카의 연구가 가장 많은 부분은 예언서이다. 김래용은 이사야 1-12, 56-66에서 미쉬파트(쓰다카 일부 포함)와 카도쉬의 주제가 심판신탁과 구원신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⁶ 김래용은 또한 미가서에서 ‘미쉬파트와 쉘에리트’는 미가서의 문학적 신학적 중심축을 형성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미쉬파트의 부재가 심판신탁의 핵심적인 원인이며 쉘에리트는 구원신탁에 나온다

13 이종근, “우루-이남기나 법과 히브리 법의 사회 정의 고찰,” 149-160.

14 서명수, “맹자의 인의(仁義)사상과 구약의 공의(公義)사상 비교,” 「구약논단」 41(2011), 83-99.

15 배희숙, “구약 성서적 공정한 사회,” 「구약논단」 41(2011), 54-82.

16 김래용, “이사야 1-12장에 나타난 거룩과 정의,” 「구약논단」 60(2016), 38-65; “이사야 56-66장에 나타난 거룩과 정의,” 「구약논단」 63(2017), 11-40.

고 주장하였다.¹⁷ 또한 하박국에 나타난 ‘미쉬파트’의 다양한 용례를 분석한 후 하박국에서 미쉬파트가 핵심단어이며 핵심적인 메시지로 기능한다는 점을 밝혔다.¹⁸ 박경철은 이사야를 중심으로 안식일의 문제와 사회정의의 실현의 관계를 다루면서, 안식일의 문제가 제의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정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다.¹⁹ 정연호는 ‘쓰다카’가 유대교에서 속죄의 의미로 사용된 점에 주목하여, 구약성서 내에서 제사장 신학이 예언 신학과 만날 때 속죄행위로 인식됨을 지적한다. 제사장 신학에서의 속죄의 문제가 예언서에서는 쓰다카의 실천으로 메시지화 되었다고 주장하였다.²⁰ 한동구는 잠언에서 ‘공정한 사회’의 이념을 사회정의의 구현으로 찾았다고 주장하였다. 합리적인 경제 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부의 분배의 원칙을 다루는 잠언에서 그 용례들을 찾았다.²¹

「구약논단」외에서도 이 주제는 다양하게 다루어졌다. 강규성은 창세기 18:16-20:18에 대한 칼빈의 성서해석을 중심으로 교회의 지향점으로서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주장하였다.²² 김근주는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이며, 창조질서 안에 내재된 세상의 보편법칙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의와 공의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고려하는 ‘공적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²³ 이희성은 이사야 56-59장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의 주제가 본문 내에서의 뉘앙스의 변화를 탐구한다. 그는 이사야 56-59장에서의 미쉬파트와 쓰다카는 인간의 실천적 행위를 의미할

17 김래용, “미가서에 나타난 미쉬파트와 웨에리트,” 「구약논단」 57(2015), 10-37.

18 김래용, “하박국서에 나타난 미쉬파트 연구,” 「구약논단」 48(2013), 99-125.

19 박경철, “안식일의 제의적 의미와 사회정의,” 「구약논단」 17(2005), 56-57.

20 정연호, “구약성서와 유대교의 속죄와 ‘제다카,’” 「구약논단」 35(2010), 161-189.

21 한동구, “잠언의 지혜 신학에 반영된 ‘공정한 사회의 이념,’” 「구약논단」 41(2011), 12-33.

22 강규성, “교회의 지향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창세기 18:16-20:18에 대한 칼빈의 성서해석 방법의 적용,” 「성서와 신학」 51(2009), 71-109.

23 김근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부르심,” 「미션인사이트」 9(2017), 80-105.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⁴ 최윤갑은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제택’의 의미론적 뉘앙스가 ‘의로운 통치, 의로운 삶, 구원, 영광, 새 창조’로 나타나 있음을 밝히고 그 의미가 이사야 전체의 거대주제의 단서를 제공하는 거울텍스트(mirror-text)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²⁵ 박덕준은 아모스의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구체적인 본문의 예를 들어 의미를 파악한 후 신학적 메시지를 제시하였다.²⁶ 사회복지 학자인 최옥채는 사회복지실천 가치로서 성서의 공의를 용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의미를 11개로 범주화하고, 기능을 6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비전공자의 글이지만 공의의 의미와 기능이 매우 다양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²⁷

2000년 이후 발표된 ‘정의와 의’에 관한 논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와 구약성서의 정의를 비교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왕의 정치이념으로의 정의가 강조되었지만, 구약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으로 정의가 더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왕의 정치이념이었지만, 구약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정치이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정의와 의의 의미는 구약성서에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며 둘 사이의 의미 구분도 매우 어려워 이사일의(hendiadys)로 사용되지만 구분되는 면도 있다. 즉 미쉬파트는 공동체 간에 형성된 정의를, 쓰다키는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으로 발생하는 의에 초점이 있다. 셋째, 이 주제는 구약성서 전체에 폭넓게 나오지만 예언서에 주로 나온다.

24 이회성, “이사야 56-59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주해적 접근을 통한 의미해석,” 『성서와 신학』 52(2009), 109-41.

25 최윤갑,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61장의 해석학적 역할: 공의의 의미론적 뉘앙스를 중심으로,” 『영산신학저널』 52(2020), 203-240.

26 박덕준, “아모스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교회와 문화』 42(2019), 38-73.

27 최옥채, “사회복지실천 가치로서 성서의 공의에 관한 탐색: 공의의 용례와 성서해석학 중심으로,” 『사회복지학』 71,2(2019, 5), 251-277.

정의와 의의 문제는 심판과 구원 신탁의 핵심이며, 멸망과 구원선포의 근거로 기능한다. 하지만 구약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로의 연구, 특히 본 연구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치이념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지금까지 구신약에서의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2) 하나님의 정치이념으로서의 정의와 의

위에서 정의한 하나님의 정치이념으로의 ‘미쉬파트’와 ‘쎄텍/쓰다카’의 예는 다음의 본문에 잘 드러나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두 단어가 구약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쓰다카)와 정의(미쉬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창 18:17-19).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이 쓰다카와 미쉬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였다는 개념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 처음 나온다. 이 장면에 뒤이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협상을 통하여 의인 10명을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미쉬파트)을 받아 멸망한다. 의인은 히브리어 ‘짜딕’으로 개인적인 의를 확보한 자를 가리킨다.²⁸ 이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샤파트)하시는 이’(18:25)로 나온다. 사회적인 의가 무너진 가운데 개인적인 의를 가졌던 롯의 가족만 심판에서

28 노아는 구약에서 처음으로 ‘의인’(짜딕)으로 불린 자이다(창 6:9).

구원받는다. 개인의 의(쓰다카)가 사회적인 의(미쉬파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분리될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여호와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 쓰다카와 미쉬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하였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중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예언자로 나온다. 예언자로서의 아브라함의 메시지는 후에 예언들을 통해 선포된다.²⁹ 이것은 구약성서에 내포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핵심 정치이념이라는 것을 천명한다. 개인과 집단의 의를 설명하는 이 두 단어는 포로기 예언자 에스겔에도 나온다. 에스겔은 ‘미쉬파트와 쓰다카’의 실천으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선포한다(겔 18:5, 19, 21, 27).³⁰ 하나님은 노아, 소돔과 고모라, 유다의 심판에서 구원기준으로 쓰다카와 미쉬파트를 제시하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선포한 그의 후손들이 지켜야 할 여호와와의 도는 쓰다카와 미쉬파트였다. 쓰다카와 미쉬파트는 모세에 의하여 다시 강조된다. 쓰다카와 미쉬파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된 언약을 되풀이하는 신명기의 주된 내용으로 모세에 의하여 선포된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행한 설교 혹은 유언의 성격을 띤다. 이 장면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를 회고(신 14장)하고 십계명에 근거해 현재를 진단(신 5-28장)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신 29-33장)을 제시하는 위대한 정치가의 모습으로 나온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를 건설할 때 실천해야 할 이상적인 청사진으로 볼 수 있다. 신명기에서 ‘미쉬파트’는 36회 나온다. 대부분은 법도를 의미하며(신 4:1, 5, 8, 14, 45; 5:1, 31; 6:1, 20; 7:11-12; 8:11; 11:1, 32; 12:1; 26:16-17; 30:16; 33:10, 21), 재판이나 송사(신 1:17; 16:18-19; 17:8-9, 11; 24:17; 25:1; 27:19), 공의(신 10:18), (죽어야 할

29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18-50*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5), 19.

30 고든 웬함, 「창세기 16-50」 (솔로몬, 2001), 142.

이유(신 19:6; 21:22), 권리(신 19:6) 등으로 나온다.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정의의 개념은 2회 나온다(신 32:4, 41). 께텍/쯔다키는 총 15회 나온다. 주된 의미는 재판에서의 공정함(신 1:16; 16:18, 20) 외에 의(義, 4:8; 6:25; 9:4, 5, 6; 24:13; 32:4; 33:21)로 나온다. 이 가운데 신명기 32장 4절과 33장 21절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를 나타낸다. 신명기에 나타난 미쉬파트와 께텍/쯔다키는 하나님의 속성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언약으로 지켜야 할 임무로 주어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미쉬파트)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 10:17-19).³¹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주요 정치이념은 정의와 의였다. 이 이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에 의하여 다윗 왕조의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선포되었다. 왕으로 즉위했던 다윗에 대한 초반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새”(삼하 8:15). 다윗 왕조의 임무가 정의와 의의 구현이라는 점은 솔로몬을 방문했던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31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대표하며 신명기는 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정의와 의로 강조한다 (참고 신 24:17-22). 이 메시지는 예언서의 주요 주제이다.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왕상 10:9)

왕정 시대에 예언자는 초기부터 존재하였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구체적인 작품을 남긴 최초의 예언자는 아모스였다. 그는 760-750년에 걸쳐 예언 활동을 하였다. 그 후 호세아(750-730), 이사야(740-700), 미가(700) 등의 예언 활동이 이어져 예언서로 남아있다. 8세기 예언자는 공통적으로 북남 왕조의 지도층들을 ‘의와 정의’의 이행이 구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왜 8세기에 들어와 문서 예언자가 등장했을까? 8세기 예언자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아시리아의 등장 이전 이스라엘 및 유다는 주로 주변의 작은 국가들과 갈등 관계 속에 있었다. 그러나 주전 850년경 살만에셀 3세(859-824 BC)가 서진 정책을 펼치면서 레반트 지역의 국가들은 위협 속에 놓이게 되었다. 살만에셀 3세의 서진정복은 메소포타미아 서부지역의 국가들이 형성한 연합군에 의해 저지되었다. 하지만 842년 살만에셀 3세가 남긴 ‘블랙 오벨리스크’에 의하면 예후가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 있다. 예후는 바알 신앙을 척결했지만, 예후 왕조는 사실상 신아시리아의 통치하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 후 신아시리아 내부의 혼란으로 인하여 레반트 지역은 일시적으로 평온한 국제적 관계 속에서 물질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호화로운 사치 생활을 누렸으나 일반 백성들의 삶은 망가진 상태였다. 외양적 호화로움 가운데 율법의 불이행으로 인한 영적 빈곤에 예언자들은 위기를 감지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언자들은 당시 신아시리아 제국의 부상이라는 국제정세를 읽으면서 ‘여호와 만’ (Only YHWH)의 신앙으로 아시리아 제국의 팽창정책을 저지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시내

산 언약의 파기였다. 언약의 내용이었던 율법이 해이해졌고, 하나님의 정의와 의가 사라졌다고 비판한다. 그것은 신학적인 위기이자 동시에 정치적, 외교 군사적인 위기였다. 언약을 위반했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국가의 멸망을 의미하였다. 소돔과 고모라의 예에서 보듯이 정의와 의의 부재는 곧 멸망으로 이어짐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예언자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율법의 핵심적인 이념인 정의와 의의 실천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사회적 약자(고아, 과부, 이방인)를 보호하라고 선포하였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정의와 의의 실천을 촉구한다. “정의(미쉬파트)를 쓴 썩으로 바꾸며 공의(츠다카)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암 5:7).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암 5:15).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24).

이사야는 여호와를 ‘정의(미쉬파트)의 하나님’으로 선언하며, 유다의 주된 임무가 정의와 의의 실현임을 가르친다. 하지만 시온의 현실은 정의와 의가 무너져 있다(1:21; 5:7). 정의와 의의 부재는 여호와 심판의 이유였다. 구원의 프로그램에도 정의와 의가 중심이 된다(1:27; 9:7; 16:5; 32:1, 16). 심판과 구원이라는 메시지에서 정의와 의는 하나님의 정치이념의 핵심을 구성한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사 9:7)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사 32:1).

산헤립의 유다 침략(701)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는 미가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7:8).

8세기의 예언자들의 활동이 아시리아 제국주의의 팽창에 따른 것이었다면, 7세기 예언자는 주로 바빌로니아 제국주의의 등장에 따른 위기에서 활동한다. 아시리아에 의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하였다. 그 후 아시리아는 612년 메디아와 바빌로니아의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하였지만, 새롭게 등장한 신바빌로니아가 그 힘을 대체하였을 뿐이었다. 새로운 제국주의적 야욕 앞에 약소국들은 저마다의 생존책을 준비해야만 했었다. 남 유다 역시 그러한 위협 앞에 놓였다. 다가오는 바빌로니아의 제국주의 야욕 앞에 예언자는 절망하며 신학적 해법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예언자는 예레미야였다. 그는 627-580년에 걸쳐 활동하였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에서 피할 수 있는 해법은 정의와 의의 실현에 있다고 선포하였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미쉬파트)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 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 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에니라(렘 7:5-6)

예레미야는 정의와 의의 실현이 국가의 흥망성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선포한다. 정의와 공의를 무시한 압제자 여호야김 왕을 비판하면서

그것을 실현하였던 아버지 요시아의 때와 비교한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앞서 아 니냐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렘 22:15-16).

아시리아 제국의 등장으로 위기에 놓였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모스와 호세아가 해법으로 제시하였던 정의와 의를 실천하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였다. 주전 701년 아시리아 산헤립의 침략으로 인한 위기 가운데서 이사와 미가가 유다를 향하여 비판하였던 정의와 의의 부재는 히스기야의 회개와 개혁으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2세의 등장으로 위기에 놓였던 유다의 왕들(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은 정의와 의의 실현을 촉구하였던 예언자 예레미야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1000-586년에 걸쳐 존재하였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3. 신약성서에 나타난 ‘정의와 의’

1) 정의(definition) 및 연구사

예수는 당시 팔레스타인이 로마제국 아래에 놓였을 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렸다. 그것은 새로운 왕국이었고, 선포되었던 메시지는 기존의 세력들에게는 위협이 되었다.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의 정치이념을 이 땅에 전하

는 것이었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정치적 사건으로 해석되어 당시의 권력자들에 의하여 견제당하였고, 마침내 체포되고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에 이르렀다.

구약성서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정치이념이었던 정의와 의는 신약성서에서도 이어진다. 그것은 예수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 속에 잘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정치이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되고 표현되어 있다. 칠십인역은 히브리어 명사인 켄텍/쓰다카를 ‘디카이오쉬네’, 형용사인 짜딕은 ‘디카이오스’, 동사인 짜닥은 ‘디카이오오’, 미쉬파트는 ‘디카이오마’로 번역하였다. 히브리어에서 두 단어는 다른 어원에서 유래된 것으로 나오지만, 그리스어에서 두 단어는 하나의 어원에서 유래된 것으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구약의 두 단어의 의미가 매우 유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칠십인역을 주로 인용한 코이네 그리스어 전통하에 형성된 신약성서에서도 구약의 두 단어가 하나의 어원에 통합되어 나온다.³² 신약성서에서 명사 ‘디카이오쉬네’는 92회 나온다. 복음서의 경우 마태복음에 7회, 누가복음에 1회, 요한복음에 2회 총 10회 나온다.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 단어는 로마서에 34회 나와 로마서의 주된 신학을 형성한다. 형용사 ‘디카이오스’는 79회로 마태복음에 17회, 마가복음에 2회, 누가복음에 11회, 요한복음에 3회 나온다. 로마서에 7회 나온다. 명사 ‘디카이오마’는 총 10회 나온다. 복음서의 경우 누가복음에 1회 나올 뿐이다. 로마서에 5회 나온다.³³ 김창락은 신약성서의 디카이오쉬네가 추상명사인 ‘의’로만 번역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행위명사로 가능한 부분도 지적하며 이 경우 ‘구원하는 정의’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³⁴

32 김창락, *읽글*, 196.

33 John Reumann, "Righteousness(NT)," *ABD V*(1992), 747.

34 김창락, *읽글*, 198.

구약성서 학자들과는 달리, 신약성서 학자들의 정의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다. 2000년 이후 위에서 언급한 번역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던 김창락의 글 외에 김관임의 세 편의 글이 발표되었다.³⁵ 김관임은 한국의 신약학자들은 정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부분 사랑과 자비에 근거한 ‘의’의 문제로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였다.³⁶ 이에 대하여 김관임은 복음서에 나오는 ‘마땅한, 옳지 않은(=불의한)’이란 낱말이 나오는 비유를 중심으로 예수의 정의를 분석하였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마 20:1-15), 탕감받은 종의 비유(마 18:23-34), 불의한 청지기 비유(눅 16:1-8a)를 분석한 후, 예수에게도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며, 규정에 의한 실행임을 보여준다고 파악한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종말에 활동할 것이지만, 예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현재 실현 중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예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기계적인 법적용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예수에게 있어서 정의는 사람들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예수의 정의이해가 창조신학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³⁷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는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그것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⁸

김창락의 연구는 ‘정의와 의’의 번역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김관임의 연구는 신학적인 ‘정의’(디카이오쉬네)의 문제보다는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정

35 김관임, “포도원 주인의 비유(마 20:1-15)를 통해서 본 경제정의에 의한 예수의 이해,” 『신학사상』 154(2011), 143-177; “예수의 비유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정의,” 『신학사상』 162(2013), 45-80; “신약성서의 정의 이해: 예수와 바울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3(2016), 47-83; 임성욱, 정용환, “사도행전의 경제정의: 다문화 속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99(2020), 101-132.

36 김관임, “신약성서의 정의 이해: 예수와 바울을 중심으로,” 52-54.

37 윗글, 64-66.

38 윗글, 75.

의(공정함)의 문제로 확대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정의와 의’가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정치이념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아울러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에 대한 바울의 해석 또한 ‘정의와 의’라는 하나님의 정치이념의 궁극적 목표이자 이 땅에 실현하려는 방법이었음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정의(디카이오쉬네)와 관련된 주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마태복음과 로마서를 중심으로 예수와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나라의 정치이념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신약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와 의

구약성서와는 달리, 신약성서에서는 ‘하나님/하늘나라’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흔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지배하는 나라로 이해되며, 예수는 구약성서에 내포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나온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치이념이었던 정의와 의는 신약성서에서 예수의 사역과 선포된 메시지의 핵심이다.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자 한다. 그때 세례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마 3:14). 이에 대하여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디카이오쉬네)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마 3:15). 예수는 사역의 핵심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선언한다.³⁹ 아울러 산상수훈에서 예수는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39) 의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의와 성취는 마태복음 신학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다음을 보라. M. Eugene Boring, “The Gospel Matthew,” in *NIB VIII* (Nashville: Abingdon, 1995), 160.

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치이념이 ‘하나님의 의’라고 가르쳤다.⁴⁰

예수는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였다. 예수는 새로운 법과 구약에서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는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선포하였다(마 5:17). 예수는 제자들의 의(디카이오쉬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친다(마 5:20).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으로 ‘의’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왔다는 원칙을 선포한 후 예수는 6가지 항목에 있어서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다. 이 부분(마 5:21-48)은 여섯 가지 반제(six antithesis)로 불린다. 구약의 율법과 예수의 새로운 율법을 대비시킨다. 그 여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살인과 분노(5:21-26), 간음과 음욕(5:27-30), 이혼과 간음(5:31-32), 맹세 준수와 맹세 금지(5:33-37), 보복 이행과 보복 금지(5:38-42), 원수를 미워함과 원수를 사랑함(5:43-48). 이 여섯 가지 반제의 핵심적인 것은 율법을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것보다 마음에서의 통제가 더 우선적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아울러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기준, 즉 세리와 이방인의 기준을 넘어선 무한한 사랑의 규범을 가르친다(5:46-47).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하는 여덟 가지 유형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입국비자의 조건과 같다. 그 가운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마 5:6)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마 5:10)가 나온다. 의(디카이오쉬네)가 하나님 나라의 입국비자를 얻는 조건에 두 번 나와 하나님 나라와 의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려준다.

40 이 구절은 시간적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외의 것을 추구하는 일에 대한 비판이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 추구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Boring, 윗글, 211.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신약성서에 명시 다카이오쉬네는 로마서에서 34회 나오며 가장 많다. 따라서 로마서의 핵심주제가 ‘의’라는 점을 잘 알려준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하나님 나라의 주요 메뉴 가운데 하나가 ‘의’이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어서 예수의 피로 화목제물로 세우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였다고 선포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다(롬 3:21-26).

신약성서의 하나님 나라의 정치이념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속죄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치이념인 정의와 의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게 한 하나님의 정의와 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사랑이 없는 정의와 의는 폭력이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그의 아들을 내놓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정치란 궁극적으로 십자가 사건 속에 담긴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임을 가르쳐준다. 이에 대하여 최갑중은 로마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사건이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의 최고봉이요, 최고 절정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⁴¹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임으로 구원의 길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

41 최갑중, “로마서의 중심주제에 대한 연구: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러티브 접근을 중심으로,” 『신약 연구』 18(2019), 520.

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정치이념인 정의와 의의 완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핵심가치라는 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예수로 인하여 형성된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의 정치이념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공동체로 볼 수 있다.⁴²

4. '정의와 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정치적 책임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데, 하나님은 정의와 의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였고, 그 후손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율법을 주고 언약을 체결하였다. 하나님은 그 후에도 예언자들을 보내어 꾸준히 개입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의를 설교하였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하나님의 정치이념을 구현하는데 실패하였다. 그것은 언약의 파기였으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회복의 프로그램 중 핵심적이었던 하나님의 의와 정의는 신약성서에서 예수의 삶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현되었다. 예수의 성육신 사건과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현하고자 하였던 정치이념이었던 정의와 의의 완성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요 19:30).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회복의 프로그램에서 제시했던 의와 정의는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내용이었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완벽하게 구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의와 의의 관점에서 보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치이념인 정의와 의를

42 R. Bauckham, *The Bible in Politics: How to Read the Bible Politically* (London: SPCK, 1989), 3.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임무를 맡겼다.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했을 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였다. 하지만 그 임무의 수행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켰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불로 태울 수밖에 없다. 정의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 필자는 정의와 의의 관점에서 본 정치에 관한 교회의 책임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시한다. 위에서 서술한 하나님 나라의 정치이념에 맞게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재설정하는 것이다. 즉 교회의 존재 근거를 하나님 나라가 제시하는 정치이념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대사회적인 책임과 관련지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복음전파를 중심적인 존재 이유로 설정해왔다. 종교적인 문제로 한정시킨 결과 핵심적인 임무인 정의와 의의 실현을 존재 이유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 따라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가르치며 실현하는 공동체로 강조점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음전파 중심의 교회는 하나님의 정치이념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정치이념으로 퇴색된 지 오래다. 개교회 중심으로 제한된 영역을 하나님 중심의 정치이념인 정의와 의로 확대하면 우리의 관심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와 국가까지 확대된다. 21세기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졌으며 전문가 대부분은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중심 시대에 그 현상은 더 심화 될 것으로 예측한다.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심화 될 것은 자명하다. 하나님의 정치이념의 핵심주제는 정의와 의이므로 국가권력이 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교회가 감시하고 비판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교회는 존재 이유를 잃고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가 될 것이다.

예언자는 그 사회의 영적 도덕적 공기의 오염에 매우 민감한 자였다. 사회적 정의와 의의 오염도가 증가할 때 대부분이 괜찮다고 느낄 때 그들은 탁한

공기를 느끼고 숨을 쉴 수 없었다. 교회는 정의의 의의 공기가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깨닫고 재빨리 전달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사회적인 정의와 의는 하나님의 정치이념이므로 그것의 구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임무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예수가 선포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정치이념인 정의와 의를 구현할 책임을 지닌 교회는 예수그리스도에게서 그 해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실현되었다. 그 점을 교회가 가르치고 실천해야 한다. 예수가 가르치고 실천하였던 의는 목숨마져 아끼지 않는 헌신과 희생이다. 사랑에 근거한 대속적 수난과 죽음의 구현이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치이념인 정의와 의를 이루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예수의 사랑에 근거한 대속적 고난, 헌신과 희생’이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 실현을 위해 감당해야 할 정치적 책임이다.

5. 맺는말

코로나 시대에 일부 개신교회는 대면/비대면 문제로 정부와 대치국면을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에서도 그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필자는 교회가 현실 정치에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경우, 그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정치이념인 ‘정의와 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정의와 의가 위협받을 때, 정치에 개입해야 한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수가 선포하였던 ‘정의와 의’의 문제를 교회는 계속

선포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논쟁의 초점이 예배 방식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 예수가 선포한 정의와 의를 구현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향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를 향할 때 찾을 수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르치고 구현해야 할 정치적 이상이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미련한 일**이다. 그러므로 대부분 사람에게 의하여 거부 되어왔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3-24).

6. 참고문헌

- 강규성, “교회의 지향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창세기 18:16-20:18에 대한 칼빈의 성서해석 방법의 적용,” 「성서와 신학」 51(2009), 71-109.
- 김근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부르심,” 「미션인사이드」 9(2017), 80-105.
- 김래용, “하박국서에 나타난 미쉬파트 연구,” 「구약논단」 48(2013), 99-125.
- 김래용, “미가서에 나타난 미쉬파트와 웨에리트,” 「구약논단」 57(2015), 10-37.
- 김래용, “이사야 1-12장에 나타난 거룩과 정의,” 「구약논단」 60(2016), 38-65.
- 김래용, “이사야 56-66장에 나타난 거룩과 정의,” 「구약논단」 63(2017), 11-40.
- 김창락, “성서에 사용된 정의와 관련된 용어들의 번역에 대하여: 미쉬파트, 체데카, 체데크, 디카이오쉬네의 용례를 중심으로,” 「성서원문연구」 30(2012), 161-227.

- 박경철, “안식일의 제의적 의미와 사회정의,” 「구약논단」 17(2005), 56-57.
- 박덕준, “아모스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교회와 문화」 42(2019), 38-73.
- 배희숙, “구약 성서적 공정한 사회,” 「구약논단」 41(2011), 54-82.
- 서명수, “맹자의 인의(仁義)사상과 구약의 공의(公義)사상 비교,” 「구약논단」 41(2011), 83-99.
- 성석환, “코로나 19시대 뉴노멀의 윤리적 가치로서 ‘공동의 선’과 한국교회,” 「기독교 사회윤리」 47(2020), 139-169.
- 웬햄, 고든, 「창세기 16-50」. 솔로몬, 2001. 원제는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BC 2; Waco, TX: Word, 1994).
- 이종근, “생명존중을 위한 메소포타미아 법들의 정의(正義): 우르남무(Ur-Nammu)와 리피트이쉬타르(Lipit-Ishtar) 법들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5(2003), 261-297.
- 이종근, “우루 - 이남기나 법과 히브리 법의 사회 정의 고찰,” 「구약논단」 28(2008), 142-161.
- 이희성, “이사야 56-59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주해적 접근을 통한 의미해석,” 「성서와 신학」 52(2009), 109-41.
- 정연호, “구약성서와 유대교의 속죄와 ‘쩌다카,’” 「구약논단」 35(2010), 161-189.
- 최갑중, “로마서의 중심주제에 대한 연구: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러티브 접근을 중심으로,” 「신약연구」 18(2019), 507-537.
- 최옥채, “사회복지실천 가치로서 성서의 공의에 관한 탐색: 공의의 용례와 성서해석학 중심으로,” 「사회복지학」 71.2(2019, 5), 251-277.
- 최윤갑,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61장의 해석학적 역할: 공의의 의미론적 뉘앙스를 중심으로,” 「영산신학저널」 52(2020), 203-240.
- 한동구, “잠언의 지혜 신학에 반영된 ‘공정한 사회의 이념,’” 「구약논단」 41(2011), 12-33.
- Amir, Yehoshua, “Josephus on the Mosaic ‘Constitution’,” in eds. H. G. Reventlow, Y. Hoffman and B. Uffenheimer, *Politics and Theopolitics in the Bible and Postbiblical Literature* (JSOTSS 17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13-27.

Bauckham, R. *The Bible in Politics: How to Read the Bible Politically* (London: SPCK, 1989).

Boring, M. Eugene, "The Gospel Matthew," in *NIB VIII* (Nashville: Abingdon, 1995).

Hamilton, Victor P., *The Book of Genesis 18-50*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5).

Kim, Dong Hwan, "Politics in the Bible," 「대학과 선교」 22(2012), 75-93.

Reuman, John, "Righteousness (NT)," *ABD Vol V* (1992), 745-73.

Scullion, J. J., "Righteousness (OT)," *ABD Vol V* (1992), 724-36.

Shulman, Harvey, "The Political and the Sacred: Political Obligation and the Book of Deuteronomy," *Jewish Political Studies Review* 3, 3 (Fall, 1991), 23-58.

Walzer, Michael, *In God's Shadow: Politics in the Hebrew Bib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검색어

정의와 의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 나라
예언서
교회와 정치

Abstract

**God's Politics and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of the
Korean Church from the Perspective of Justice(צדק) and
Righteousness(יָשָׁר, δικαιοσύνη)**

Yoon-Jong Yoo

Pyeongtaek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how the ‘justice and righteousness’ of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play a role in God’s political ideology. In the Old Testament, justice and righteousness occur in Genesis 18:17-19 where they are referred to as being both God’s purpose in choosing Abraham and an obligation Abraham and his descendants must keep. In Torah, especially in Deuteronomy, justice and righteousness are proclaimed by Moses as the law to obey. In the period of the Davidic dynasty, there were strong political

tensions on the issues of justice and righteousness between the prophets and groups in power such as kings, priests, and nobles. The prophets urged political actors to implement justice and righteousness on behalf of God. Against Assyrian and Babylonian threats, political actors in Israel and Judah tried to solve matters through military and diplomatic means, whereas the prophets proclaimed justice and righteousness for the poor and weak people in society. The fulfillment of justice and righteousness as God's political ideology was the criterion for judgment and salvation.

In the New Testament, Jesus proclaimed 'righteousness' as a key element of the Kingdom of God especially in the gospel of Matthew, where Jesus' ministry is declared as the fulfillment of God's righteousness (Matt 3:15). Jesus asked his people to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Matt 6:33a). Jesus suggests righteousness as a criterion for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Matt 5:20). Among the eight beatitudes of the sermon on the mount, two beatitudes are concerned with righteousness (Matt 5:6, 10). Paul interpreted Jesus as God's new righteousness as testified to by the Law and the Prophets (Rom 3:21). Paul portrayed Jesus as the manifestation of God's righteousness for the condemned sinners.

In the 21st century, the positive influence of the Korean Church on society has been declining rapidly especially among youths. This is proof that the Korean Church failed to earn public trust and respect as a result of immoral behaviors such as sexual scandals and hereditary pastorship. In the contemporary COVID-19 pandemic, Korean Churches have been blamed for the improper handling of the crisis. By insisting on the controversial right to meet including in worship services, despite its unlawfulness, churches became hot-

beds of the pandemic. This paper maintains that justice and righteousness as God's political ideologies should be emphasized as the crucial message for the restoration of the Korean Church in the pandemic period.

Keywords

justice and righteousness

God's politics

God's kingdom

prophetic books

church and politics

- 투고일: 2021년 1월 15일
- 심사일: 2021년 2월 8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2월 9일

www.kci.go.kr